

# 또... 안전불감증

## 광주·전남 안전사고 잇따라 3명 사망·5명 매몰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13층(지상 30m)에서 고가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오던 작업 인부 서모(62)씨와 손모(42)씨 등 2명이 추락해 숨졌다.

### 광주 아파트 외벽공사 2명 고가사다리차서 추락사

### 화순 오수관거공사장서 흙더미 깔려 2명 사망·매몰

### 광주 주상복합 공사 현장선 4명 매몰됐다 구출되기도

서씨 등은 외벽 방수공사를 끝낸 뒤 가로 2m·세로 2m 크기의 이동식 크레인 바스켓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목격자 강모(65)씨는 경찰에서 "15층에서 작업 중이던 이동식 크레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13층까지 순식간에 내려온 뒤 멈춰는데, 그 충격으로 인부 2명이 뒹겨져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바스켓과 고가사다리차를 연결하는 지름 2cm의 와이어 로프 7개 중 1개가 끊어지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전날 와이어 로프를 교

체했다는 건설회사 및 크레인 운전기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와이어 로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안전 점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7일 오후 1시40분께 화순군 능주면 농업기술센터 옆 도로에서 강모(42)씨와 박모(75)씨가 오수관거 공사를 하다 흙더미에 깔려 매몰됐다.

강씨는 사고 즉시 재빨리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고령인 박씨는 흙더미에 깔려 119에 의해 20여분 만에 구출됐으나 끝내 숨졌다.

박씨 등은 능주면 일대를 연결하는 오수관거 공사를 위해 3m80cm 깊이의 땅을 파고 지름 25cm의 PE관을 6미터씩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을 위해 비스듬히 땅을 파지 않고 직각으로 땅을 파고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펜스를 일부만 설치한데다,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상주하지 않은 점 등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안전지침 준수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

또 지난 6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부 4명 매몰 사고(광주일보 6월7일자 6면)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청이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 대학입시설명회에 쏠린 눈

건국대·서울과학기술대 등 서울지역 5개 대학은 지난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14 대학 수시모집 전형 전략 등 공동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순천 여대생 납치·절도 사건 범행 동기·과정...모든게 의혹

### 공범 잡아야 윤곽 나올 듯

"아수룩해 보이는 범행 탓에 무엇을 노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범행 사를 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생면부지의 사람 들어서 친구의 여자친구를 납치했다니..."

순천 여대생 납치·절도 사건의 피의자 2명 중 1명이 체포됐지만 범행 과정 곳곳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가 포착되고 있다.

순천경찰은 9일 달아난 공범 정모(23)씨의 행적을 뒤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이들의 범죄 행각이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적지 않아 사건 동기과 배경 등을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납치범들의 아수룩함은 피해자 윤씨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지 않은 채 화장실에 보냈다.

또 범행 대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대상으로 삼은 점도 의문이다. 정씨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 과정에선 윤씨가 자신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대로 노출했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이들의 범행 동기 등이 불투명하다"라면서 "일부 언론에선 자작극이라고 보도했지만, 근거는 없다. 아수룩한 범행임이 확실하지만, 달아난 공범을 잡아봐야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의 돈을 훔칠 목적이었다면, 집앞에서 윤씨와 윤씨의 룸메이트를 동시에 불러낸 사이 나머지 1명이 돈을 몰래 가져갔어도 되는데, 굳이 납치를 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윤씨에게 휴대전화를 준 채 화장실에 보낸 점도 납득되지 않는다. 범인

### 들 윤씨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윤씨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지 않은 채 화장실에 보냈다.

또 범행 대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대상으로 삼은 점도 의문이다. 정씨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 과정에선 윤씨가 자신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대로 노출했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이들의 범행 동기 등이 불투명하다"라면서 "일부 언론에선 자작극이라고 보도했지만, 근거는 없다. 아수룩한 범행임이 확실하지만, 달아난 공범을 잡아봐야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 나원침 (8834) 김종두



### 조용기 목사 불구속 기소 150억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순 부장 검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조용기(77) 원로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 PC방에서 전자발찌 훼손 '난동'

○PC방에서 게임 하던 중 집으로 돌아가려는 보호관찰관에 회를 내며 전자발찌를 부순 20대 성범죄자가 경찰서행.

○범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민모(20)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에게 언성을 높이며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고 휴대용 추적 장치를 부수버렸다던 것.

○민씨는 지난 2011년 4월 조건민을 통해 만난 A양(15)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관명.

/윤현석기자 chad@kwangju.co.kr

### 대마초 방송인 비앙카 두 달 전 이미 출국

검찰이 출국금지 재신청을 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사진)가 두 달 전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습뉴스

### 여수 해변서 철망에 묶인 女 변사체

지난 7일 오후 5시10분께 여수시 화양면 백아리 백아대교 아래 갯벌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을 주민이 발견, 여수해양경찰에 신고했다.

### 순천 계곡서 물놀이 여중생 의식불명

지난 7일 오전 11시30분께 순천시 서면 관교리 한 계곡에서 안모(여·14·중 2년)양이 물에 빠졌다. 안양은 같은 학교 여자 친구 5명과 함께 학교가 휴교 되면서 인근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양이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계곡의 수위가 깊어지는 지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편, 시신에 철 그물망에 걸려 있고 벽돌이 달려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순천 여대생 납치·절도 사건의 피의자 2명 중 1명이 체포됐지만 범행 과정 곳곳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가 포착되고 있다.

순천경찰은 9일 달아난 공범 정모(23)씨의 행적을 뒤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이들의 범죄 행각이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적지 않아 사건 동기과 배경 등을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entries for apartments and individual houses.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entries for houses and land parcels.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인정되며, 낙찰자가 낙찰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금 전액의 10%를 초과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②낙찰자가 낙찰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금 전액의 10%를 초과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③낙찰자가 낙찰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금 전액의 10%를 초과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④낙찰자가 낙찰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금 전액의 10%를 초과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⑤낙찰자가 낙찰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금 전액의 10%를 초과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⑥낙찰자가 낙찰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금 전액의 10%를 초과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⑦낙찰자가 낙찰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금 전액의 10%를 초과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⑧낙찰자가 낙찰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금 전액의 10%를 초과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⑨낙찰자가 낙찰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금 전액의 10%를 초과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⑩낙찰자가 낙찰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금 전액의 10%를 초과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2013. 6.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김정필